



김 주 형 이사  
(제일제당 원료사업부)

# 미국중서부 홍수에 따른 사료가격 전망

## 〈미국중서부의 홍수사태〉

**지난** 6월 하순부터 시작된 미국 시카고 곡물 거래소의 상승세는 전세계 곡물교역국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근 한 달동안 연일 상한가의 행진이 계속되었다. 이는 세계의 식량 창고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중서부 지역에 예기치 않은 집중 폭우가 계속되면서 주요경작지역을 가로지르는 미주리강 및 미시시피강이 범람하는 홍수사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 기간 각 지역의 강우량은 예년의 3~4배에 해당하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였으며, 결국 노아의 홍수이래 최대규모라고 외신들이 보도하였던 것처럼 미국은 한 세기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홍수피해를 당하게 되었다.

이번 홍수로 인한 피해면적은 미국 텍사스주 이상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규모로 약 8백만 헥타아르의 농경지가 유실되었고, 50명의 인명피해와 60억불의 농작물 피해를 포함한 총 120여억불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크게 피해를 입은 곳은 주요 곡창지대인 아이오와, 미주리, 일리노이, 미네소

타 등 8개주에 걸친 이른바 콘벨트(CORNBELT) 지역으로 미국 클리턴대통령은 이 지역을 연방 재해지역으로 선포하기도 하였으며, 이 지역이 미국 전체 사료곡물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곡창지대인 까닭에 세계곡물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동기간에 우리나라가 수입하여 오고 있는 옥수수와 대두는 무려 톤당 15불, 60불 각각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다. 홍수피해로 중서부지역의 옥수수, 소맥, 대두 등의 수확량이 감소하리라는 예상으로 대규모 단기투자가와 곡물메이저들은 빈번한 단기투기 및 사전 물량 확보를 위한 대량 매수주문을 내었고, 이것이 시장가격의 상승세에 커다란 기폭제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 전반적인 이상기후 속에 미국의 동남부 지역에도 고온과 한발이 진행되어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지역의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냉해피해, 수확시기에 닥친 남미의 홍수, 태국 및 남아공의 가뭄현상 등 미국에 국한되지 않는 기상이변 현상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금년도의 이러한 기상이변 현상



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홍수피해의 영향 등, 곡물의 일목요연한 수급상황을 알기 위해서 미국 농무성에서 발표하는 수급보고서를 참고하기로 하자.

이는 미국 및 전세계의 곡물수급관계를 조사, 매월 발표하는 것으로 전세계의 수급상황과 가격의 향방을 예측하는데 매우 공신력있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6월 하순의 홍수 초기만 하여도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곡물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7월에 접어들면서 홍수의 피해가 점차 늘고 가시화되자 사설 분석기관에서 먼저 생산량이 감소한 수급예상치를 발표하였고, 이어 미국 농무성에서도 홍수피해를 감안한 8월 수급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옥수수의 경우 전년에 비해 생산량이 22%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세계적으로는 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한편, 대두 생산량은 미국이 전년비 1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세계적으로는 4.4%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어 기말 재고량은 각각 34.5%,

<표1> 세계 옥수수 수급상황

(단위: 백만톤)

구 분	'93/'94		'92/'93	
	8/1	7/1	8/1	7/1
기초재고	102.70	102.80	79.42	79.42
생 산	477.60	486.00	528.63	526.63
총 공 급	641.90	650.20	670.01	668.88
기말재고	74.90	79.30	102.70	102.78

에 대해 기상전문가들은 이를 지구온난화 현상과 엘리뇨 현상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지난해 겨울의 이상난동과 시베리아의 눈 녹음 현상이 늦어짐에 따라 대기의 흐름이 왜곡되었다는 것과 평균 4~5년을 주기로 페루 중부에서 태평양 적도 부근에 걸쳐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엘리뇨 현상이 금년에는 1년을 주기로 되풀이되고 있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우기 일부 미국 기상학자들은 최근 일련의 기상이변 진행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극심한 한발이 내년에 내습할 가능성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대부분의 곡물을 해외로부터 도입하여야 하는 우리에게 많은 우려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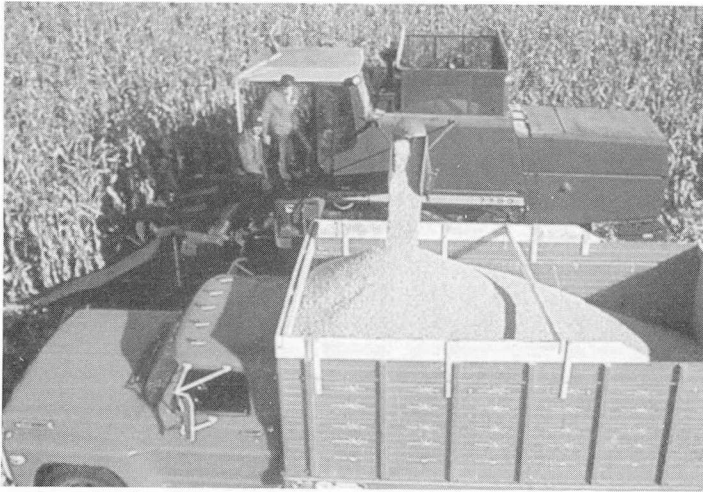
### <곡물수급상황>

금년도는 사실상 봄부터 비가 계속 내린 관계로 예년에 비해 곡물의 파종이 늦어졌다. 이로 인해 성장속도도 예년 평균에 비해 3~4주 정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홍수가 발생하여 그 피

<표2> 미국 옥수수 수급상황

(단위: 백만톤)

구 분	'93/'94		'92/'93	
	8/1	7/1	8/1	7/1
기초재고	54.61	53.95	27.94	27.94
생 산 량	188.56	199.40	240.78	240.78
총 공 급	243.42	253.35	268.87	268.72
기말재고	35.77	41.37	54.61	53.67



금년 이상기후 현상과 함께 예년보다 빠른 서리 내습을 예고하고 있다. 금년 봄부터의 강우로 파종이 늦어졌고 홍수로 인하여 작황의 진척속도는 예년에 비해 3~4주 정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리의 피해를 입는다면 미국 전체 사료곡물 생산량의 10%~15%의 감소가 전망되어진다.

세계적으로는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두박의 경우는 미국의 생산량은 1.7% 정도 감소하는데 그쳤으며, 세계적으로는 전년과 비교하여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표3〉 주요 국가별 대두 생산량

(단위 : 백만톤)

구 분	대 두		대 두 박	
	'93/'94	'92/'93	'93/'94	'92/'93
세 계	111.80	116.89	76.75	76.39
미 국	51.77	59.79	32.73	33.31
알제틴	12.00	11.20	6.72	6.68
브라질	22.60	22.30	12.84	12.14
인 도	3.30	3.11		
중 국	11.60	10.30		
EEC	0.72	1.16	10.38	11.45

대두와 옥수수 수의 홍수 피해와는 달리 소맥의 경우, 미국의 생산량은 전월치와 변동이 없고 전년도보다는 12% 이상, 그리고 기말 재고량은 31% 이상 증가되었다. 세계 생산량은 전월보다 2.34%, 전년도보다는 1.89% 가량 증가되고, 기말 재고량은 1.92% 증가될 것으로 나타나 매우 호전된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하여 본다면, 옥수수 및 대두는 22%, 13% 각각 생산량이 감소되었으며, 지역별로는 20~30

〈표4〉 세계 소맥 수급상황

(단위 : 백만톤)

구 분	'93/'94		'92/'93	
	8/1	7/1	8/1	7/1
기초재고	132.70	130.80	126.60	125.52
생 산 량	569.50	556.50	558.76	558.44
총 공 급	816.40	803.90	805.19	802.35
기말재고	135.20	128.30	132.65	130.80

〈표5〉 미국 소맥 수급상황

(단위 : 백만톤)

구 분	'93/'94		'92/'93	
	8/1	7/1	8/1	7/1
기초재고	14.39	14.39	12.85	12.85
생 산 량	69.56	70.78	66.92	66.92
총 공 급	86.00	87.22	81.67	81.67
기말재고	18.94	20.16	14.39	14.39

% 정도의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대두 생산량 감소에 따라 향후 대두박 생산량도 감소될 전망이다. 특히 전년도부터 경쟁력을 상실한 미국산을 대체하여 금년도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옥수수 소요량을 도입한 중국산의 경우도 중국 국내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한국을 비롯한 해외 수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년도 옥수수 생산량이 9,540만톤에서 '93/'94년도에는 140만톤이 감소된 9,400만톤으

로 예상되고 있고, 더욱이 강우로 인하여 알곡의 충실함이 부족한 옥수수가 출하되고 있어 소요량의 대부분을 해외도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다소 어두운 상황이나, 소맥의 경우 이미 언급하였듯이 공급이 충분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며 사료용으로의 수입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어 옥수수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다소 줄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가격전망〉

미국 중서부의 홍수 피해가 8월에 들어서면서까지 피해규모가 계속 확대되자, 미국 시카고 곡물시장의 옥수수 및 대두가격은 홍수 이전에 비해 약 20~30% 정도 급등한 부셸당 270센트, 740센트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현물수입가로 환산한다면 CNF 톤당 140불, 305불에 달한다. 홍수로 인한 단기간의 곡물가격 급등은 또한 전세계 곡물수입국들이 대비할 수 없었던 엄청난 가격상승의 부담을 안겨 주었다. 이제까지 수십년동안 가격폭등의 요인은 대부분 한발이었으나, 금년의 경우는 대홍수 발생이 가격폭등의 기폭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즉 '72년, '76년, '80년, '83년, '88년 등의 가격 폭등시에 주요 요인은 극심한 한발에 기인하였으며, 경험적인 4년, 10년의 가격폭등주기에 따라 향후에도 한발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전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6월 하순의 홍수초기에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점차 피해가 커지고 가시화되면서 급등세를 보이게 되어 이에 대한 대처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미국산 옥수수의 가격상승 영향과 국내 소비량 증가요인으로 중국산 옥수수도 6월경 톤

당 106불에서 7월에는 톤당 115불로, 8월말경에는 톤당 120불대를 형성하는 급속한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상황은 해외로의 수출량에 한계가 있으므로 금년말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배합사료에 최소 30% 이상 사용하는 옥수수의 가격상승은 배합사료가격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8월 중순부터 홍수의 피해가 더 이상 늘지 않고 기상조건의 호조에 힘입은 양호한 작황 진행으로 9월 현재 시카고 곡물시장에서 옥수수는 부셸당 240센트, 대두는 640센트에서 조정국면을 보이고 있다. 이를 현물가격으로 환산한다면 옥수수는 지난 7월중의 최고가격에 비해 무려 톤당 10불이 하락한 CNF 126불대에 수입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하겠다.

그러나 많은 기상분석가들은 금년 이상기후 현상과 함께 예년보다 빠른 서리 내습을 예고하고 있다. 금년 봄부터의 강우로 파종이 늦어졌고 홍수로 인하여 작황의 진척속도는 예년에 비해 3~4주 정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리의 피해를 입는다면 미국 전체 사료곡물 생산량의 10%~15%의 감산이 전망되어진다. 정상적인 수확시 218백만톤이나 10% 감소시 대략 200백만톤이 예상되며 옥수수의 경우 다시 한번 최고치를 갱신하는 시세형성도 예상된다. 나아가 이러한 요인으로 미국의 축산물 및 식료품의 가격이 급등한다면 주요 원료 수입국인 한국, 일본, 대만 등의 배합사료 및 축산물의 가격상승을 부추길 것이 확실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서둘러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다른 나라의 곡물수급상황 변화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축산 및 사료산업으로 그치지 말고 원료의 선구매 등 좀더 능동적인 자세로의 전환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한다. ■ 眞 諦